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개 <15> 반려견 동반 즐거운 휴가

## “넓은 마당 있는 애견펜션에서 눈치보지 말고 즐기세요”

매년 반려견들과 여행을 떠나며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는 박영정(39·광주시 남구 봉선동)씨. 지난해 봄,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제주도로 10박짜리 짧지 않은 여행을 다녀왔다는 박씨는 올 가을에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려견들과 '한달살기'를 도전해보리라 마음먹고 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점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마당이 있는 유치원에 보내면서 뛰어놀게 하고 운동장이 갖춰진 애견카페도 자주 다니지만 고작 2~3시간 후면 집으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잘 갖춰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온종일 뛰어놀 수 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도 여름휴가 시즌은 누구 못지않게 설레는 시기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어느 가족과 다를 바 없다. 코로나19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좀 괜찮다' 싶은 전국의 애견펜션들은 8월 중반 이후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다. 애견동반 숙소들은 독채이거나 3~4가 족만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전국에 애견펜션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면 찾아갈 정도로 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박씨의 반려견은 모두 세 마리다. 희귀견종인 꼬동 드 틀레아 '로이'(10)와 '루루'(2), 그리고 시츄 '그림'(10)이다.

10년을 함께 산 로이·그림이는 제주도만 벌써 세 번째로 온 '프로여행견'이다. 막내 루루까지 합류한 완전체 제주여행은 지난해 봄, 아직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다녀왔다. 비행기는 기내에 1인 1견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화물칸에 태워야 해서 포기하고 배를 탔다.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 자차로 이동했고, 로이·루루·그림이와 영정씨, 로이 친구 달자와 견주까지 2인(人) 4견(犬)이 함께 했다. 완도에서 출발해서 제주항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30여분, 이동가방에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던 루루가 멀미가 있는지 기어이 구토를 한 것만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얼흘을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한 건 없어요.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잠시 멈춰서 바다를 바라보는 정도가 고작이었지요. 그 외엔 거의 속소에 머물렀어요. 독채로 된 애견펜션에 머물며 현관문을 열어두면 아이들이 미당과 방을 오가며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루루는 어려서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뛰어 놀았어요. 헛빛보고 잔디에 누워서 놀기도 하구요. 그런 모습 보면 자주 데리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어요."

'반려견들을 위한' 여행을 계획할 때 박씨가 가장 신경 쓰고 확인하는 부분은 역시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지'다. 흙 마당보다는 잔디가 있는 곳을,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가 있는 곳을 선택한다. 울타리는 꼼꼼하게 둘러져 있는지, 마당이 집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여행 준비물은 상비약으로 소화제와 지사제를 준비한다. 때에 따라 '물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바닷가 모래사장 산책이 계획되어 있을 땐 목욕 후 텔을 말릴 수 있는 드라이기와 수건을 많이 준비한다. 이외에 패드, 기저귀(실내에서 자다가 실수할 경우를 대비), 목욕샴푸, 사료, 간식 등이다.

"8월 22일에는 로이·루루와 같은 꼬동 친구들과 모여 앤만도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꼬동 드 틀레아는 희귀견 종이다 보니 일년에 한 번씩 종친회 비슷한 성격의 모임을 갖는데, 300마리가 모이기도 해요. 신기한 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데도 싸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혼자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그림이는 잠시 가족에게 맡겨두고 다녀와야 할 것 같네요."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제주여행 기념사진. 왼쪽부터 달자, 그림, 로이, 루루.



지난해 봄 제주여행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촬영한 꼬동 드 틀레아 '루루'와 친구 '달자'. <박영정 씨 제공>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여름엔 쿨매트, 겨울엔 담요 쟁겨줘야하는 손 많이 가도 포동포동 귀여운 막내 '기니'**

저희집 막내동생 문기니양을 소개합니다. 기니는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기 기니피그예요. 쥐과의 포유류지만 징그럽지 않고 통통한 모습이 정말 귀여운 아이예요. 저와 여동생 모두 동물을 좋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했는데,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선택한 아이가 기니였어요.

기니를 데려온 후 저와 동생은 인터넷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특히 여름과 겨울에 제운 유지를 위해 신경써줘야 한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는 쿨매트를 깔아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담요나 이불로 덮어주는 식이에요.

기니피그는 사료와 건초를 먹고 가지나 셀러리 같은 야채를 좋아해요. 육식은 전혀 안되고 오로지 채식으로 식사를 하죠. 그런데도 포동포동 살이 찌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강아지처럼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싶지만,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자칫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 버릴까봐 풀어서 키우지는 못하고 있어요. 길게는 15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니 막내 기니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과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답니다.

<문이랑·광주시 남구 봉선동>

※반려동물의 사진과 이름, 나이, 특징, 연락처 등 간단한 소개를 전자우편(yoonsarang\_love@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리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062) 227-9940

062) 227-9970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2) 765-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61) 752-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